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사랑방공동체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창립기념주일 기념 특강이 교육관에서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제: 사랑방공동체 40년,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강사: 정태일 목사
- 예배 후에 임시총회로 모입니다.(정관 개정)
- 멧쟁이학교가 29일(월)부터 한 주간 가정학습기간으로 휴교합니다.
- 2023년 주보 모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며 현관 계단을 새롭게 수리하였습니다.
- 김이레 청년(젊은이 사랑방)이 29일(월)에 포천시에서 카페 창업합니다.
상호 : 이레 로컬 샐러드 카페
주소 : 포천시 호국로 1423 포천청년비전센터 1층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다함께 (창립 40주년을 감사하며)
 강단을 꽃으로 : 석지원 청년 (생일 감사)
 신희(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17 호
 2024년 4월 2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은
 방
 사랑
 사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도보여행과 40주년

오늘은 사랑방공동체 창립4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한국 땅에 선교 10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 갱신의 소명을 주시며, 사랑방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3박 4일에 걸쳐서 멧쟁이 학교 도보여행이 있었습니다. 화천에서 출발하여 가평과 현리를 넘어 광릉수목원 길을 지나서 포천 사랑방까지 대략 110km 정도의 거리를 학생들과 함께 걸어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보통 여행은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어려모로 좋은 점이 있는데, 특히 도보여행은 보다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 주는 여행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행의 전 과정을 오롯이 자신의 몸으로 견뎌내어야 하는 것이 도보여행의 특별한 점입니다.

여행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자신이 먹을 것들과 지내야하는 텐트를 직접 지고 가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먹거리와 텐트를 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로 자기가 속한 모둠과 공동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속도를 맞추어서 길을 걷다보면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책임지는 법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짐을 나누는 과정은 각 모둠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에 약한 자를 배려하여 저학년에게는 보다 가벼운 짐을 맡기고, 선배가 될수록 더 무거운 짐을 맡아서 가지고 갑니다. 선배들은 이미 몇 차례의 도보여행 경험이 있는데, 앞선 선배들이 그동안 해 오던 방식을 기억했다가, 자신들이 먼저 받았던 배려를 그대로 지금의 동생들에게 베푸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모두가 이 어려운 도보여행을 낙오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함께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보면 길 위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여행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비록 잠깐 스쳐가는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의 격려와 응원의

선교와 섬김

한 마디가 여행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크게 북돋우어 줍니다. 어떤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대견하다 다함께 힘내라는 말 한 마디를 건네주는 것이 막상 그 힘들음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선뜻 나누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점심은 일정상 매식을 하게 되는데, 식사 후에 매장에서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사장님들, 매번 점심 도시락 먹을 장소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복 자람터 간사님들, 길에서 만난 어떤 분은 산에서 막 땀 두름을 한 봉지 내어주셔서, 학교로 돌아와 점심 식사 반찬으로 다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길을 가는 과정 자체도 큰 배움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전체로 생각하면 참 멀고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긴 과정을 작은 과정으로 나누어서, 각 코스의 이정표를 목표 삼아서 가다 보면, 그 날의 속소를 만나게 되고, 마침내는 110km를 걸어서 이곳 사랑방까지 모두가 완주하게 됩니다.

완주를 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끝났다는 기쁨과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만족감과 다 같이 해내었다는 어떤 일체감과 같은 것이 뒤섞여서 감정으로 폭발쳐 올라 눈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을 지지해 주셨던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오고, 뜻있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함께 누리며 살아온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몫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감당하였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함께 라서 올 수 있었으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방의 40주년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 사무엘상 6편 1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250 338 288
 기도 : 전선희 집사
 성경 : 이사야 25장
 제목 :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1.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What)
 - 1) 전체 주제, “내가 ...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1b>
 - 2) 찬양 이유,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 이루셨습니다.” <1c>
 - 3) 내용 중심, 내가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2.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Why)

내용의 구조, “주님께서(는) ... 하셨다(하실 것이다)”의 형식이다.

 - 1)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찬양한다.
 - 2) 주님께서 주변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한다.
 - 3)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시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한다.
3.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How)
 - 1)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십시오.
 - 2) 외부의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실 주님을 믿으며 찬양하십시오.
 - 3) 어려운 상황? 주님 베푸시는 하늘잔치를 소망하며 찬양하십시오.

성서일기

왜 핸드폰을 쓰면 안되나요?

예전에 군대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잘됐다’ ‘올 것이 왔군’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들곤 합니다. ‘멋쟁이학교의 규정이 군대보다 싸세다.’ 예. 적어도 멋쟁이 학생들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특히나 적합한 이유가 없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그렇겠지요. 이미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따끔 이유를 물어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학교 내 인간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첨단 통신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떨지 조금은 짐작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거리가 아니라 서로 눈빛을 마주하며, 목소리를 듣고, 살을 부딪치며 살아가는 이런 생활에서 더욱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SNS들은 대부분 ‘보여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다 보여주지 않아도 들여다볼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멋쟁이에서는 좋은 싫든, 여러 의미로 삶이 진실하게 공유됩니다. 언제까지나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삶에 때론 흠발로, 버선발로,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면서 변화를 겪고, 그러면서 상처와 추억, 미움과 사랑, 자신과 남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남학생들 방에서 음악을 틀면, 같이 따라 부르는 멋쟁이, 춤추는 멋쟁이, 추임새를 넣는 멋쟁이, 시끄럽다는 멋쟁이, 운동하는 멋쟁이, 자장가 삼는 멋쟁이, 남들을 보며 웃는 멋쟁이 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함께 있는 장소에서 혼자 이어폰을 끼는 것을 지양하고 나서 얻을 수 있었던 광경입니다. 좋은 사람과도 힘겨운 사람과도 함께, 다양한 환경과 취향 속에서 진실한 나눔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의 저에게도 참 눈부시고, 계속해서 지향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미리내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4 : 24
32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10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언약궤를 신고 벧세메스로 가는 어미소

사무엘상 6 : 1-16

은혜,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궤를 신고 벧세메스로 가는 어미소” 정태일 목사

< 성찬식 >

설교자
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16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348(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서병욱 임진숙 / 봉헌위원 : 채영학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공동기도문

교회의 회복을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사랑방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몸을 드려 헌신하는 결단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언약궤를 신고 벧세메스로 가는 어미소

언약궤를 본래의 자리로. 블레셋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
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땅에 두었습니다. 이로 인
해 블레셋 땅에는 재앙이 임하였고, 왕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언
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젓먹이는 어미 소 두 마리가 끄
는 수레에 언약궤와 다른 제물들을 담은 상자를 실어서 보냅니다.
어미 소들은 똑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갔고, 그곳에 도착하여 번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신앙공동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헌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
는 것은, 신앙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며, 젓먹이 어미 소를 사용한
것은 회생할 수 없는 것을 회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공동체(교
회)의 회복에는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드려 헌신하십시오. 지금의 한국교회는 마치 언약궤
를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신앙공동체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어미 소의 회생과 같이 몸
을 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
을 위해, 사랑방공동체가 이러한 헌신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전경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베개를 들고 와서 하룻밤 함께 자는 '베개의 날'을 했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자는 것이 좀 불안하고 무서울 것도 같은데 올해 네 친구는 설레고 신나는 마음이 가득차서 아무도 울거나 보채지 않고 잘 자고 잘 먹고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요!

상자를 소라게, 택배상자, 자동차, 비행기로 변신시키며 한참 놀다가 트램폴린도 실컷 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학교 교실로 사용 중인 공동주택 거실에 선생님과 꾸러기들이 힘을 합쳐서 텐트를 쳤습니다. 저녁식사 준비도 함께 했는데 꾸러기들이 야채를 썰고 달걀을 깨뜨려 주었어요. 다함께 요리한 하이라이스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마시멜로 구워먹기, 노래방으로 변신한 꾸러기학교에서 노래 부르기, 목욕하기, 베개 들고 인증 사진 찍기 등 하루를 알차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뉴는 여러 가지 재료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먹는 샌드위치였는데 만드는 재미도 있고 맛도 있었지요. 애니메이션 '마녀배달부 키키'를 보고 오후 4시에 헤어질 때는 선생님들의 눈꺼풀은 자꾸 내려왔지만 꾸러기들은 하룻밤만 자고 헤어지는 것은 너무 아쉽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했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멋쟁이는 지난주에 3박 4일 간 도보여행을 다녀왔고, 꾸러기는 1박 2일 베개의 날을 보내고서 다음 날 가정 학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꾸러기학교, 멋쟁이학교의 특별한 시간들을 위해서 때마다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는 한편 운동장을 독차지하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누린 특권이 있다면 어린이만 있었던 목요일 점심

시간에 특식을 먹은 것인데요. 어머니 몇 분이 끓여주신 라면과 열정 김밥을 먹었어요. “선생님, 오늘 이게 웬일이예요?”라며 예상치 못한 식단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놀라고 기뻐했는데, 먹다 보니 역시나 제일 맛난 건 요리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밥이구나! 하며 새삼 느꼈습니다. (요리 선생님 밥이 최고예요!^^)

5월 9일에 있을 캠프를 앞두고 목요일부터 드디어 캠프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조장들이 모여서 조를 편성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조장 모임이 있다는 발표를 듣자마자 “와~!!”하며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을 보니 여행이 없는 4월이 어린이들에게 좀 심심했나 싶었습니다.

다음 주는 심심할 틈이 없을 거예요. 캠프 조별 모임에, 건강 검진에, 멋 부리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멋쟁이들은 커다란 가방꾸러미를 들고서,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8시에 모였습니다. 어디서나 미경험자들에게 선배들이 도보여행 경험을 말을 말해주기 바빴습니다. 아무도- 그 경험자들조차 힘에 부칠 정도의 여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숙소에 갈 수 있도록 차량지원을 해주신 김종필 집사님, 가장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공수해주신 김연희 선생님, 마중도 나와주고 맛있는 치킨도 선사해주셨던 동문들, 비 내리는 연인산을 통과한 우리를 멋진 저녁밥으로 환대해주신 5학년 부모님, 그리고 새벽5시에 일어나 전날보다 1.5배의 거리를 걸어가야 했던 마지막 날- 학교로 들어갈 때에 환영과 축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들이 기억납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들었던 만큼 대단히 보람차고 뿌듯한 여행이었습니다. 물품 정리와 피드백까지 마친 이후의 멋쟁이들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앞으로 1주일간은 가정학습 기간입니다. 잘 쉬면서 보람찬 시간들로 보내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광야 40년. 사랑방 40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생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보다 못한 현실을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어 심기기도 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방공동체를 세운신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나 사랑방공동체나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세대가 끝나고 이제 새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지도자보다 연배가 높은 교인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마음이 두렵고, 어깨가 많이 무거울 줄 압니다. 사랑방의 지체들이 젊은 새 지도자를 잘 보필하여 사랑방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지도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이끄심을 잘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 사랑방 공동체도 새 지도자를 따라 전통을 잘 지켜나가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방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미숙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505장 301장
성 경 : 열왕기상 10장 1-9절
말 씬 : 좋은 소문을 뱉시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과 이란은 주변국들의 중재로 혼란이 정리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라파지역에 공격할 것을 예고하며 중동지역의 긴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대만, 요르단 중국 선교사님들을 위해>
현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이번 주 40주년 기념주일을 마음모아 준비하고 예배, 식사, 강의 그 외에 맡은 모든 분들에게 지혜가 더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 2) 여행 중에 있는 꾸러기학교와 멧쟁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연두색 잎사귀가 짙은 녹색이 되는 봄의 정점에 닿아있는 요즘입니다. 각양의 꽃들이 공동체 화단을 장식하고 향기를 뿜어내는 지금. 사랑방공동체는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화단도 꾸미고, 깨지고 터진 교육관 계단도 정비하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주님의 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식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동체의 마당을 보며 이곳이 바로 땅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닌가!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